

“개발이익 공유”...신안 햇빛연금 300억 돌파

2021년 전국 최초 시행 혁신 모델 주목
주민 절반 혜택...2028년 전 군민 확대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톡톡’
내년부터 햇빛아동수당 120만원 지급

신안군이 추진 중인 ‘햇빛연금’ 누적 수익이 이달 기준 300억원을 돌파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햇빛연금’을 시행 중이다.

신안군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사업자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를 탈피해 주민이 개발이익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로, 전국 지자체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군이 추진중인 2018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햇빛연금’ 누적 수익이 이달 기준 300억원을 돌파했다.

〈신안군 제공〉

특히 연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며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2014년부터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으나 햇빛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2023년부터 2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바람연금’ 도입 효과까지 더해져 2025년 9월 기준 인구가 710명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

했다.

현재 햇빛 바람연금 수혜자는 1만8천97명(군민의 49%)으로 2028년 330MW 규모 신안우이해상 풍력(주)발전소가 완공되면 전 군민(100%)이 연금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햇빛아동수당’을 통해 아동 복지에도 나서고 있다. 2023년부터 관내 18세 이하 아동 약 3천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80만원, 2025년에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지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안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서 임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주민과 함께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소멸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국비 3천400여억원을 투입한다.

/신안=양훈 기자

윤병태 시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는 나주”

에너지공대 등 산·학·연 기반 갖춰

윤병태(사진) 나주시장이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나주)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기원하며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목을 받은 윤병태 시장은 다음 주자로 신정훈 국회의원,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총장 직무대행을 지목했다.

윤 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략적 거점”이라며 “전남도와 함께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를 중심으로, 한전과 에너지밸리, 초전도 등 첨단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국내 최고의 에너지 연구 중심도시다.

시는 그간 정부의 핵융합 연구 정책 방향에 맞춰 기반 구축과 연구 협력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전략 포럼’을 열고 핵융합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8대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담은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포럼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연구 인프라 고도화,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나주시는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대와 협력해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정했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핵융합 분야에서 한국에너지공대·한전·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형 핵심기술 개발 전략 실현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 신지 명사십리 맨발걷기 명소 우뚝

해변 모래 입자 지압 효과 뛰어나

산소 음이온 도시보다 50배 풍부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사진)가 지난해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공식 선포되며 맨발 걷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는 3.8km의 모래 해변과 더불어 1km의 황토길, 해송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이다.

특히 모래 입자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줘 지압 효과가 뛰어나며 황토길은 흙의 온기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신지 명사십리는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해 걸으며 기후 치유를 하기에 적당하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서 국제 인증인 ‘블루 플

래그’를 국내 최초로 획득한 이래 8

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지난 25일 ‘제2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이 열렸고, 앞서 지난 7월에는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려 신지 명사십리를 찾은 1천여명의 참가자들은 청정한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인 미스터 존씨는 “방광암 수술 후 신지 명사십리에서 6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우철 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자연이 주



는 치유와 회복이 공간으로 맨발 걷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며 “앞으로도 맨발 걷기, 명상, 치유 등 힐링 콘텐츠를 통해 사계절 웰니스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한국섬진흥원 ‘울릉도·독도…섬 특별전’ 개최

광복 80주년·독도의 날 기념

한국섬진흥원(KIDI)은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복 80주년과 ‘독도의 날’(10월25일)을 기념해 울릉도·독도 그리고 섬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섬진흥원과 서울시, 울릉군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인 울릉도·독도와 우리 섬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국토외곽 섬의 정보를 소개하는 홍보보스가 설치돼 한국섬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찾아가고 싶은 88개 섬’ 체험 콘텐츠, 국내 3천300개 섬의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시 프로그래밍에서는 울릉도·독도의 역사·문화·자연환경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사진·영상전에서는 ‘독도사랑 80년사’와 ‘하늘과 바다에서 본 독도·울릉도’ 등을 통해 독도의 역사와 생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울릉장터에서는 명이나물 등 울릉군 특산품과 독도 기념품을 판매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의 가수 정광



태 씨와 금천 문교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플래시몹 공연과 북청사자놀음보존회의 전통 민속공연이 펼쳐졌다.

〈사진〉

이어 독도경비대·등대 근무자 토크콘서트,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의 특별강연 등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이번 특별전은 울릉도·독도를 비롯해 국토외곽 섬들이 지닌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섬의 역사와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국민이 섬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영광군, 주민배심원단 추가 모집

ARS 무작위 추첨 15명 선발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 점검

영광군 27일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할 ‘주민배심원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15명을 추가 모집한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핸드폰이 아닌 유선전화로 ARS를 진행하며 18세 이상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8·31일까지 ARS를 통해 무작위 추첨 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선발한다.

추가로 모집된 15명의 주민배심원단은 기존 배심원단과 함께 11월17일, 12월1일, 12월8일 총 3회에 걸쳐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과 심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면 최종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 권고안을 제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배심원단 추가 모집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 상황을 군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배심원단은 군민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공약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올해 7월 ‘영광군 공약실천조례’를 제정하고 군수실에 공약 추진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공약의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군 군민 백내장 수술 지원 협약

센트럴윤길중앙과 등 참여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센트럴윤길중앙과, 영암한국병원과 ‘백내장 수술 지원 민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의료 나눔 문화 확산에 공감한 병원이 나선 이번 협약은, 고령화로 증가하는 백내장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영암군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영암군은 수술 대상자 발굴·연계를, 영암한국병원은 수술 전 무료 기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센트럴윤길중앙과는 1년에 12명의 백내장 무료수술·진료를 담당한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술 만족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



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기본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영암군에 건강 기본권을 확대해 준 두 병원에 감사하다. 오늘 민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영암 어르신들에게 빛을 찾아주자”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송아지 건강 키워 한우값 올린다

성장 촉진 ‘알팔파 펠렛’ 공급

534농가 7천300마리 지원

강진군이 한우 사육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송아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송아지 육성기 보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시기부터 고단백 조사료인 알팔파를 펠렛 형태로 급여해 근육 발달과 골격 형성을 촉진, 우량 송아지 생산은 물론 이후 비육 단계의 육질 등급 향상까지 기대하고 있다.

알팔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이 우수

해 성장 촉진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조사료지만 가격이 높아 농가 자율 구매가 어려운 고 급사료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5천600만원을 투입, 관내 534농가의 송아지 7천300여 마리를 대상으로 135t의 알팔파 펠렛을 공급했다.

특히 권역별로 품질이 균일한 제품을 일괄 공급해 농가 만족도가 높다. 알팔파 펠렛은 건조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배합사료 위에 간편히 뿌려 급여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도 크다.

송아지 1두당 1일 권장 급여량은 200g이며 5개월간 꾸준히 급여할 경우 성장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정영록 기자